



미 증시, 시장 예상치 상회한 CPI 지표에 급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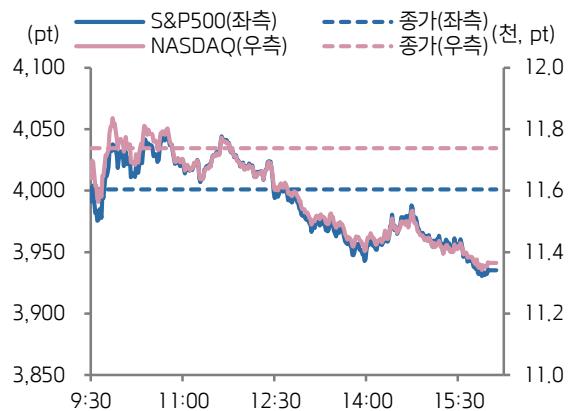
11 일 (수) 미국 증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 4 월 CPI 지표로 인플레이션 장기화 및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급락. 미국 4 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8.3% 증가(예상 +8.1%, 전월 +8.5%), 근원 지표는 전년대비 6.2% 증가(예상 +6.0%, 전월 +6.5%)로 전월대비 둔화되었지만,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감 고조. 지표 발표 전 1%대 강세를 보이던 S&P500 선물은 강보합 출발 이후 장중 저점에서 마감. 이날 애플,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들의 급락세 속에서 나스닥은 3% 이상 급락(다우 -1.02%, S&P500 -1.65%, 나스닥 -3.18%, 러셀 2000 -2.48%).

인플레이션 지표 항목 중 월세와 임금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감 확대.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는 물가 지표 발표 직후 3.08%까지 급등했지만, 장중 인플레이션발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7bp 하락 마감(2.92%), 2 년물 금리도 급등 후 결국 1bp 상승 한 2.64%에 마감. 지표 발표 후 FedWatch 에 따른 6 월 FOMC 75bp 금리 인상 확률은 85~90% 수준을 유지.

업종별로 에너지(+1.4%), 유트리티(+0.8%), 소재(0.03%)가 상승, 경기소비재(-3.6%), IT(-3.3%), 통신(-1.5%) 등 나머지 업종은 하락. 애플(-5.2%), 마이크로소프트(-3.3%), 테슬라(-8.3%) 등 빅테크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IT,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업종 급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3.0%), 다우 운송 지수(-1.2%), 다우 항공 섹터 지수(-3.0%)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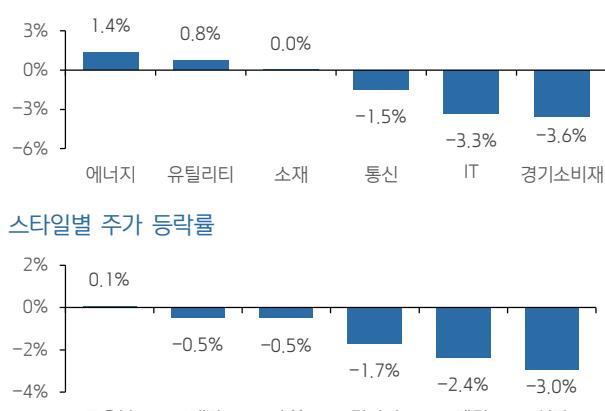
종목별로 실적을 발표한 EA(+8.0%)는 매출과 EPS 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FIFA 와 파트너십을 종료한다는 발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주가 급등. 로블러스(+3.4%)도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도 주가는 상승. 코인베이스(-26.4%)는 실적 및 가이던스 부진으로 급락.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디즈니는 견조한 구독자수 성장을 발표했지만, 아시아 코로나 재확산으로 디즈니랜드 실적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경고하며 장외로 약 2% 하락. 리비안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에 실적을 발표했지만, 수요가 견조하며, 생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장외로 5% 이상 급등.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35.18	-1.65%	USD/KRW	1,275.53	-0.04%
NASDAQ	11,364.24	-3.18%	달러 지수	104.00	+0.07%
다우	31,834.11	-1.02%	EUR/USD	1.05	+0.03%
VIX	32.56	-1.3%	USD/CNH	6.76	-0.09%
러셀 2000	1,718.14	-2.48%	USD/JPY	129.96	-0.01%
필라. 반도체	2,811.94	-3.04%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291.09	-1.18%	국고채 3년	2.917	-13.8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260	-15bp
Eurostoxx50	3,647.87	+2.62%	미국 국채 2년	2.637	+2.5bp
MSCI 전세계 지수	619.54	-0.78%	미국 국채 10년	2.921	-7bp
MSCI DM 지수	2,677.25	+0.2%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07.22	-0.74%	WTI	105.71	+5.96%
MSCI 한국 ETF	63.60	-1.09%	금	1853.7	+0.6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7%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8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79.4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인플레이션 불안심리 재확산에 따른 국내 증시 장중 약세 가능성
2. 루나 등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세가 국내 관련주 포함 전반적인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
3. 장중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저점 및 기술적 매수세 유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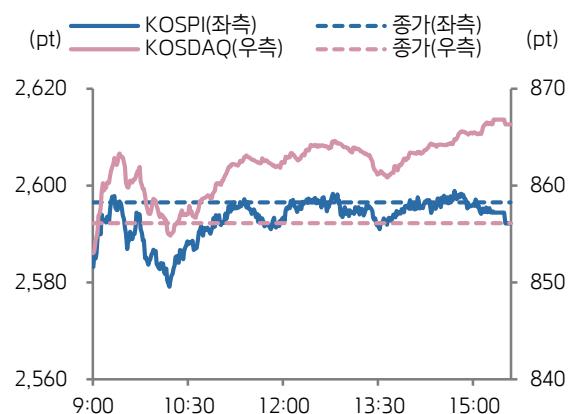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나스닥 폭락 등 미국 증시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듯이, 5 월 중 주요 변곡점이었던 4 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불안심리가 진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물론 헤드라인 소비자물가(8.3%YoY, 3 월 8.5%)와 근원 소비자물가(6.2%, 3 월 6.5%)는 지난달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 또 에너지(3 월 48.3%→4 월 44.7%), 중고차(3 월 35.3%→4 월 22.7%) 등 인플레 핵심 유발 요인이었던 주요 품목들도 폭등세가 진정되고 있으며, 향후 해당 품목들의 가격 경로도 안정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4 월 물가 데이터 상으로는 피크아웃 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헤드라인(컨센 8.1%)과 근원(컨센 6.0%) 물가 모두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거비(5.0%→5.1%) 뿐만 아니라 항공료(23.6%→33.0%) 등 서비스 품목 관련 물가가 리오프닝 수요와 맞물리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난에서만 기인한게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더 나아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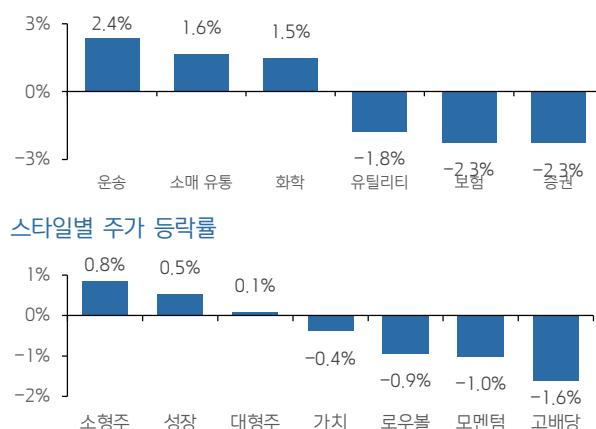
결국 시장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후행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가운데, 시장 신뢰를 잃어버렸던 연준이 어느정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역시 중요해진 상황. 따라서 5 월 중 파월의장의 연설 포함 6 월 FOMC 까지 불가항력적인 변동성 확대는 감내야 하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최근 주요국 증시의 조정은 2020년 판데믹 당시에 준할 정도로 이루어진 만큼 추가 하락 압력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또 CME Fed Watch 상 연말 연준의 기준금리 3.0%대 도달 확률이 5 월 내내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이는 채권시장 내에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전망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므로, 부정적 요인 보다는 중립적인 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 인플레이션 불안심리 속 미국 증시 약세, 옵션 만기일에 따른 현선물 수급 변동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디파킹 문제로 하루만에 90% 넘게 붕괴를 루나를 비롯해 전반적인 코인들이 폭락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도 성장주들에게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구간이지만, 최근의 증시 급락은 패닉셀링인 만큼 장중 저점 및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수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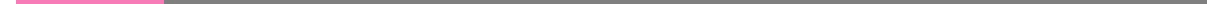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